



Dataset

분석기간: 2019/01/01~2022/12/31

분석 툴: 빅쿼리, 파이썬(Matplotlib, Folium, Pandas)

용어설명

중상자: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

경상자: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

부상신고자: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

치사율 : 사고 1건당 사망자

사망률: 전체 사상자(사망자+부상자)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

데이터 표제	데이터 내용	데이터셋 출처	데이터셋 링크
사망교통사고정보	17~21년 17개 시도별 가해자 법규위반, 부상자 추이, 사고유형 등	공공데이터포털	https://www.data.go.kr/data/15070340/fileData.do #layer_data_infomation
법규위반 위치정보	법규위반별사고 다발지역정보 조회 서비스	도로교통공단	https://www.data.go.kr/data/15058087/openapi.do
교통사고 사망	사망교통사고정보서비스	도로교통공단	https://www.data.go.kr/data/15059126/openapi.do #tab_layer_detail_function
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	연도별 교통사고 통계	한국교통안전공단	https://tmacs.kotsa.or.kr/web/TG/TG200/TG2100S/ Tg2101.jsp?mid=S1147
전국 교통사고	2017년~2022년 일자별 교통사고 건수, 사상자 수 및 사고 유형별 교통사고	TAAS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	https://taas.koroad.or.kr/sta/acs/exs/typical.do?me nuld=WEB_KMP_OVT_UAS_ASA#
서울시 교통정보	도로별 일자별 통행속도	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	https://topis.seoul.go.kr/
서울시 교통단속카메라	서울시 구별 과속단속카메라	서울경찰청	https://www.smpa.go.kr/
서울시 인구수	서울시 행정구별 인구수	국가통계포털	https://kosis.kr/



제안 배경 및 분석 목표

안전속도 5030 시행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며 거센 여론에 일부 시군구에서는 야간에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등 정책을 수정 시행할 예정

성숙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 안전에 중요한 요소를 분석하고, 향후 교통 정책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.





地 覧記 は足에れな (1年 50kmを 7+さりひ) 71号17十 된 ヒアルのにた.

서울 시내에서 거운가를 몰라는 건가요?

속도를 낮추던 더 한전해진다는 것은 지나당한 사실 아니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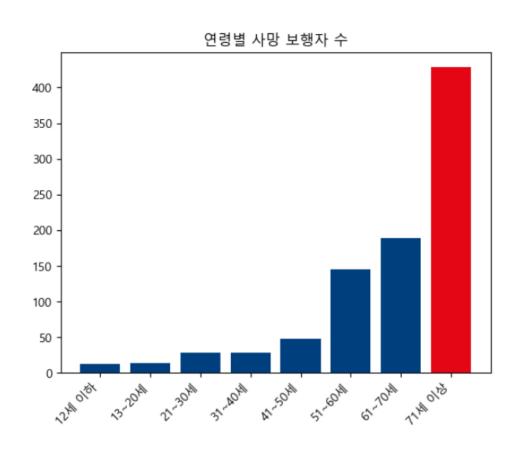
03. 환경적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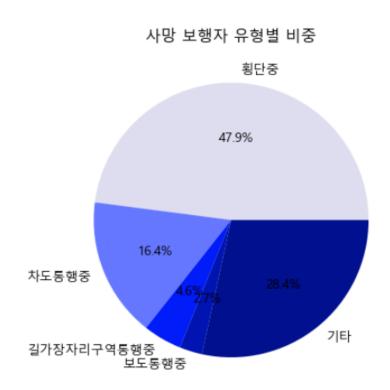


01. 피해자 특성



사망 보행자는 71세 이상이 가장 많으며 연령이 높아질 수록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 사망 보행자는 사고 당시 횡단 중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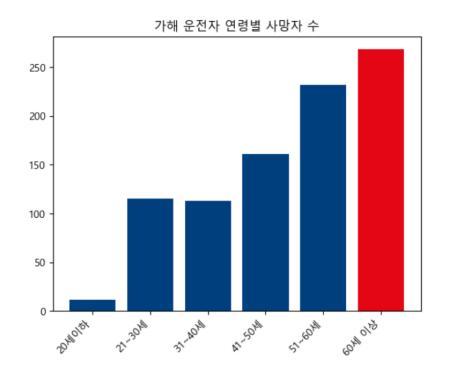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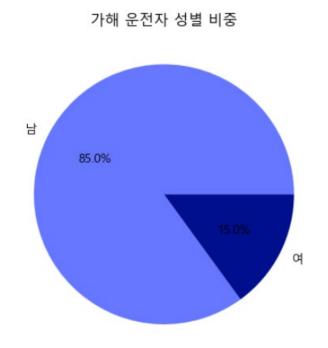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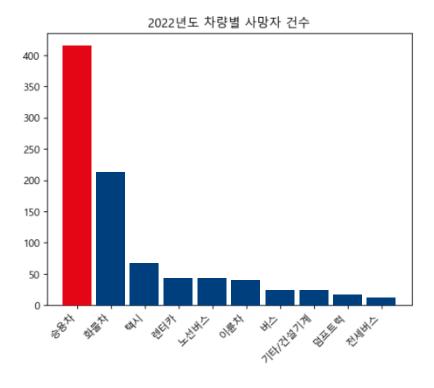
02. 가해자 특성

안전속도 **5030**

보행자사망교통사고가해운전자는 60대이상, 성별로는 남성이가장 많았으며가해차량은 승용차가가장 많았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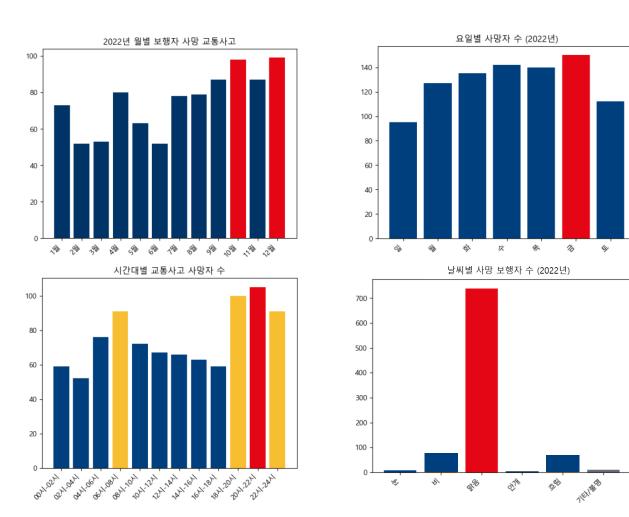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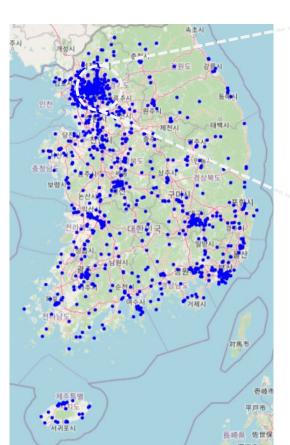


03. 환경적 특성



보행자시망교통사고는 10월과 12월, 20~22시, 금요일, 맑은 날씨일 때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경기, 서울, 부산 등 대도시 단위에서 많이 발생 ≥ 서울을 중심으로 분석 진행 예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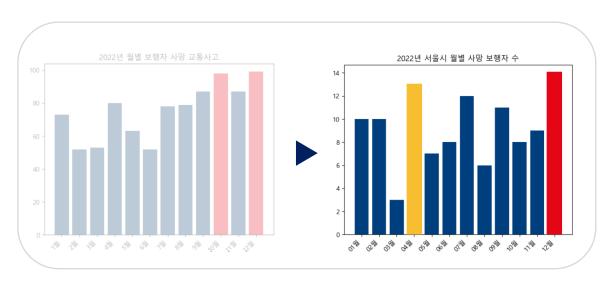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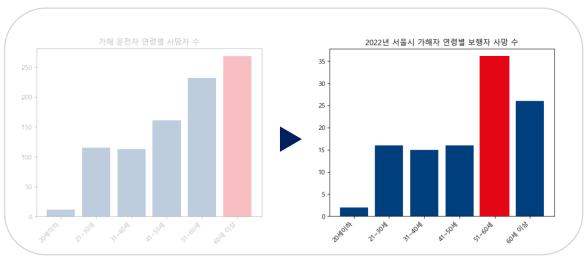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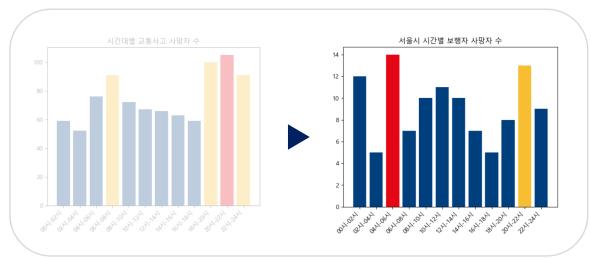




서울시보행자시망교통사고는전국대비 4월, 새벽 4~6시에 많이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50대, 남성이 더 많았다.









기설

[치사율]

가시거리가 짧아지면 사고 치사율이 올라갈 것이다.

[운전자]

차량평균속도가높을수록사망사고가많이일어날것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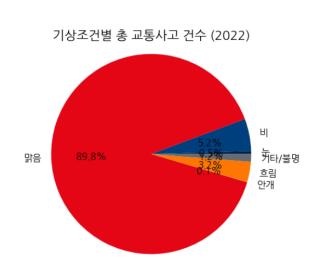
[보행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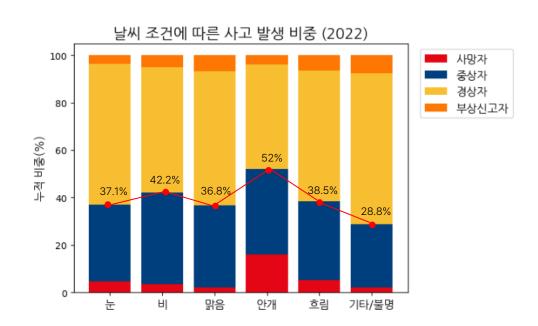
인구 수가 많을 수록 사망 사고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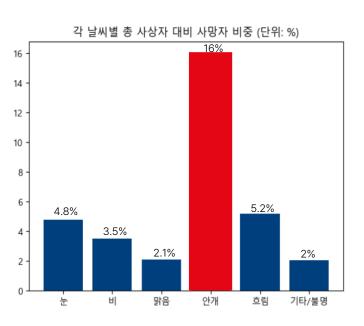


가시거리가 짧아지면 사고 치사율이 올라갈 것이다.

보행자 교통사고는 맑은 날씨일 때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각 날씨 별 사상자 대비 사망자 비중은 안개가 가장 높은 순위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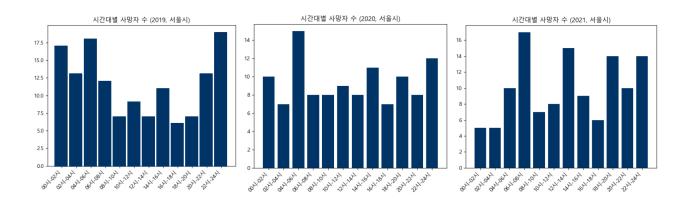
가시거리가 짧아지면 사고 치사율이 올라갈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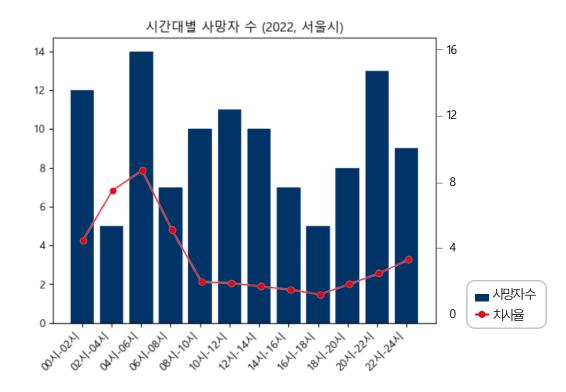
4개년도 서울시 시간대별 사망자 수 비교 결과 일몰 후부터 일출 전(약19시~06시) 시간대에 사망자 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향

사고건수 대비 사망자 수 즉 치사율의 입장에서도 일몰 후부터 치사율이 증가하며 일출 직전 정점을 찍는 모습

[결론]

시야 확보가 어려운 안개 낀 날씨 또는 야간에 즉 가시거리가 짧아지면 사고 치사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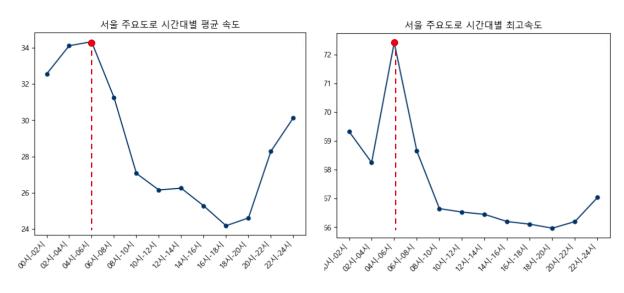
차량 속도가 빠를 수록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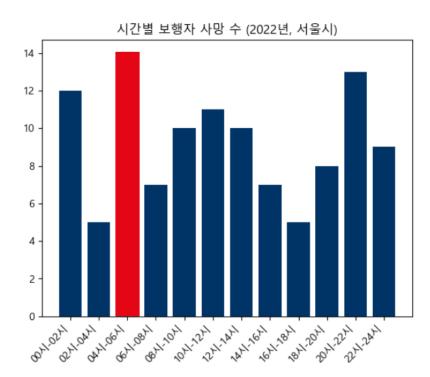
2022년 한 해 사망자 수는 시간대별 평균 속도와 비슷한 양상 이간(18시~06시) 시간에는 주요 도로 최고 속도 추이와 일치

서울 주요 도로 기준, 최고 속도와 평균속도가 가장 빠른 4시~6시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

[결론]

차량 속도와 사망자 수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향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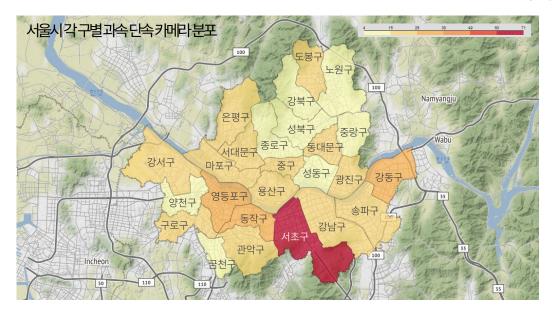
과속 단속 카메라가 많을수록 사망사고가 적게 일어날 것이다.

과속 단속 카메라가 가장 많은 서초구, 강동구, 동작구는 카메라 1대당 사망자 수가 낮았으며

과속 단속 카메라가 적은 중랑구, 강북구는 카메라 1대당 높은 사망자 수 기록

[결론]

과속 단속 카메라가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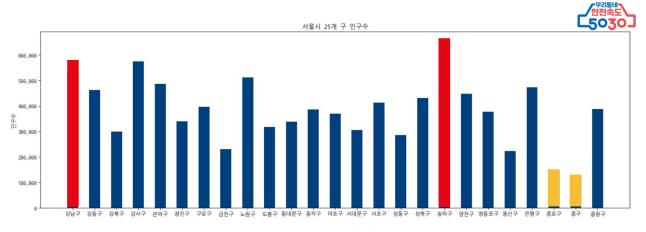
인구 수가 많을 수록 사망 사고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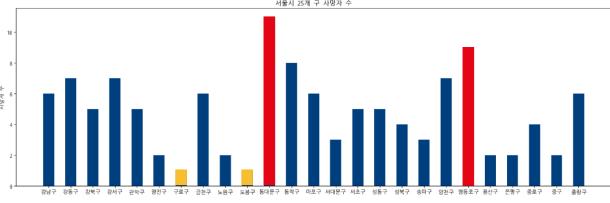
송파구 – 강남구 순서로 인구수가 많으며 중구 – 종로구 순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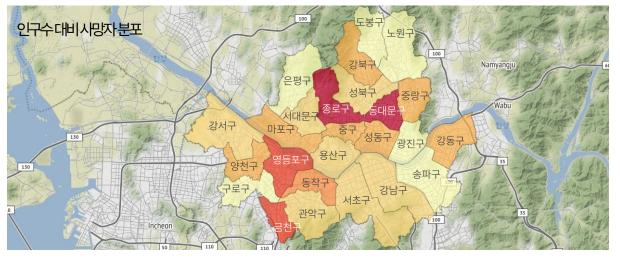
동대문구 – 영등포 구 순으로 사망자 수가 많으며 도봉구 – 구로구 순으로 사망자 수가 적은 지역

[결론]

인구 수와 사망자 수는 불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구 수 대비 사망자 수가 많은 지역을 볼 때, 거주 인구 수 보다 유동인구 수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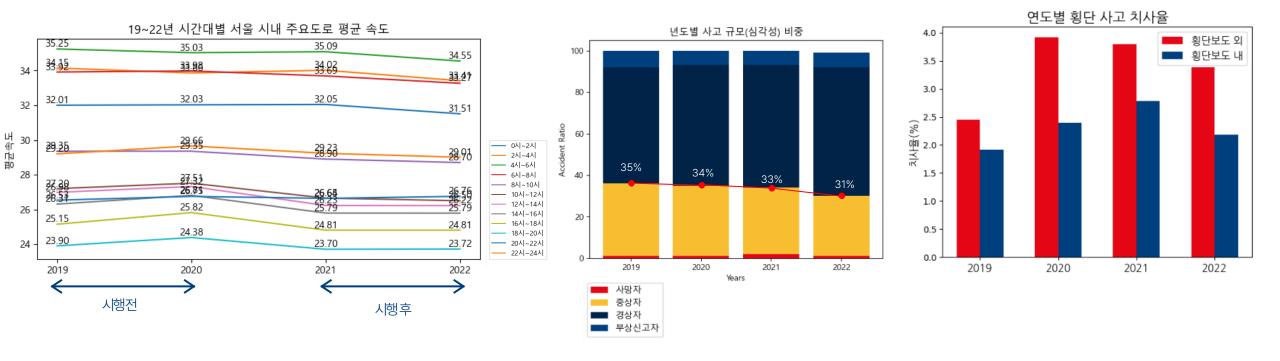




정책



시행이후 서울 주요 도로 <mark>평균 속도가 감소</mark>하였으며 **사고의 심각성 또한 감소** 특히, 운전자의 빠른 대처가 필요한 <횡단 보도 외 횡단 중>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아 안전속도 5030이 보행자 시망 교통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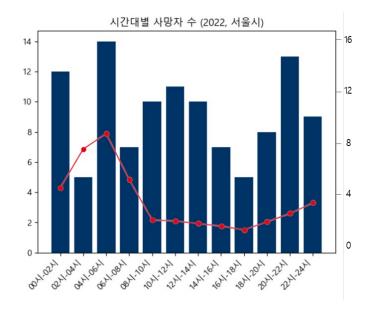
시사점



박무, 연무 등이 자주 발생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**새벽 시간대**에도 정책 유지 및 **과속 단속 카메라** 1대당 사망자 분포가 높은 곳에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권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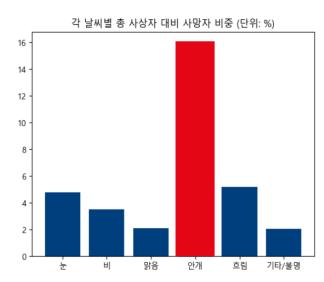


새벽 시간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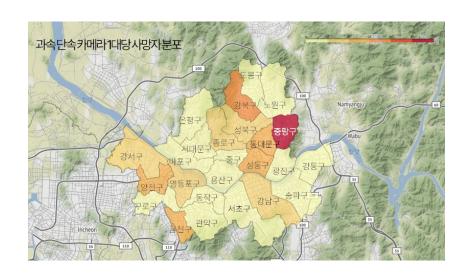


안개 낀 날씨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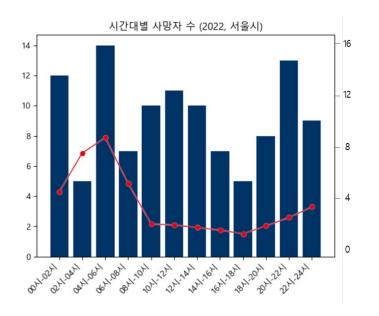
과속 단속 카메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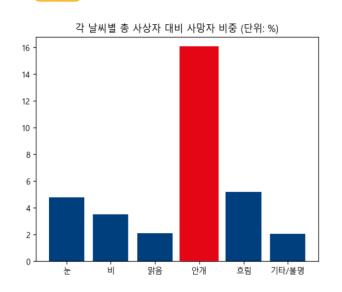


박무, 연무 등이 자주 발생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**새벽 시간대**에도 정책 유지 및 **과속 단속 카메라** 1대당 사망자 분포가 높은 곳에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권고

사벽 시간대



❤️ 안개 낀 날씨



안전속도 5030 수정 시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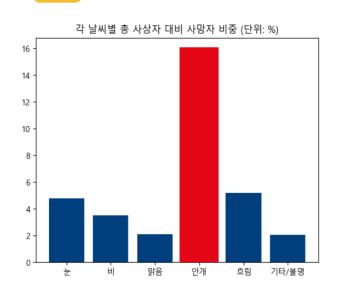


박무, 연무 등이 자주 발생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**새벽 시간대**에도 정책 유지 및 **과속 단속 카메라** 1대당 사망자 분포가 높은 곳에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권고

《 새벽 시간대



슬 안개 낀 날씨



안전속도 5030 수정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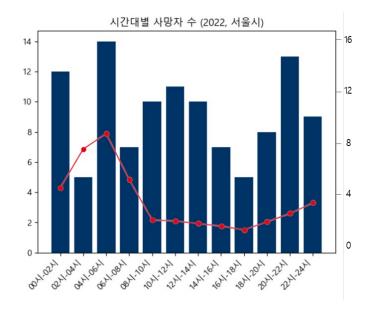




박무, 연무 등이 자주 발생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**새벽 시간대**에도 정책 유지 및 **과속 단속 카메라** 1대당 사망자 분포가 높은 곳에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권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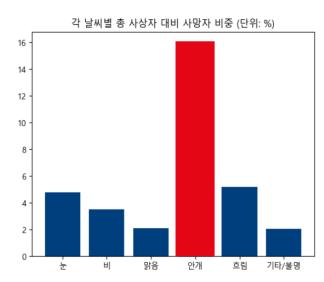


새벽 시간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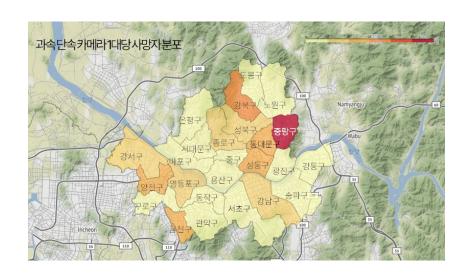


안개 낀 날씨





과속 단속 카메라



Q&A

감사합니다